



It's OK not to be OK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관찰지 않아도
괜찮아

“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모든 것에는 금이 가 있어. 그래서 빛이 새어들 수 있지.
레너드 코헨 Leonard Cohen ”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것이 크던 작던 금(crack)이 가 있습니다.
마치 깨지기 직전의 유리와 같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갈라진 틈,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말이죠. 이번 변화산 기간 우리는 아팠고, 부끄러웠으며,
힘들었고, 흔들렸던 이들에게 찾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질 위기에 처한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만난 후
얼마나 더 단단해 졌는지 알게 됩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흔들려도, 두려워도, 외로워도, 부끄러워도,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변화산 기간 중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것입니다.



2019-2차 변화산새벽기도회 주제가
예수 나의 치료자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words music by 송재홍

A E/G# Em/G F# Bm A/C# D E



예수나 - 의종 - 은치 - 료자 - 그의 눈이며 - 무는곳 - 은 나의 상처와 - 아픔 -

5 Dmaj7 E/D C#m F#m Bm D/E A



고갯들어그 - 의눈 - 을볼 - 때에 - 난알았네 - 예수 나의종 - 은치 - 료자 -

9 A E/G# Em/G F# Bm A/C# D E



예수나 - 의종 - 은치 - 료자 - 그의 눈이며 - 무는곳 - 은 나의 상처와 - 아픔 -

13 Dmaj7 E/D C#m F#m Bm D/E A



영원히흐를 - 것같 - 았던 - 눈물 - 다머졌네 - 예수 나의치 - 료자 -

17



나 노래하 리 라 - 천한 나 를돌 - 아보 - 신 구세

20



주 를찬 - 양 해 하늘 당 는곳 - 까지 - 내 손 들

22



리 라 - 예수 나 의 치 - 료자 -

2019-2차 변화산새벽기도회 주제가
나의 믿음 주께있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words music by Shawn Craig, Don Koch

A/C#
D
A/C#
 나의 믿음 - 주께있네 - 십자가
Bm
D/E
A
F#m
 능력이 - 내영 - 광되 - 었네 주께 - 서
DM7
D/E
C#m
F#m
 우리를 - 승리케 하 셧네 - 나의
Bm
Bm/E
E
A
 - 능력 - 나의 - 소망 - 주께있네 -

2019-2차 변화산새벽기도회
참여방법 7가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1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변화산새벽기도회
기도회 시간뿐만 아니라, 24시간 개방된 성전, 그리고 가정에서도 기도해 보세요.

2 강단으로 나와 기도하세요.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 좀 더 깊게 기도하고 싶은 분은 강단으로 나와 기도하세요.
월요일 M.Kidz, MY.Blue, 화요일 사랑, 희락, 화평, 수요일 인내, 자비, 양선
목요일 충성, 은유, 절제, 금요일 M.C, 새가족, 타교인

3 헌금은 나누어, 기도제목은 자세히
헌금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매일 드리세요. 기도제목을 헌금봉투에 자세히 적어 주시면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4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은혜받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합숙하며 중보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특별히 담임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5 온 가족, 그리고 나무식구들과 함께 참여하세요.
온 가족, 그리고 나무식구들이 함께 변화산에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화산새벽기도회 동안 모두 함께 오르기 위해 삶의 패턴을 바꾸어 보세요.

6 주제 찬양을 부르세요.
이번 변화산새벽기도회 주제 찬양의 내용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한 주간 반복해서 불러 보세요.

7 오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매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괜찮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세요.

2019-2차 변화산새벽기도회
예배실 안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본 예배실 시온성전(본관2~4층)

중계영상 예배실 로비(본관 2~3층), 새가족영접실(본관 2층),
다니엘홀(본관 지하 1층), 자모실(본관 2, 4층)

- ① 가급적 많은 성도님이 시온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앞에서부터 자리를 좁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강단안수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시온성전 2층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②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님께서는 2층과 4층에 마련된 자모실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 ③ 저녁기도회는 매일 오후9:00, 다니엘홀(B1)에서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① 교회 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셔틀버스나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셔틀버스 시간표는 2층 로비 안내데스크,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③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묵상노트를 사용해 보세요.
- ② 기도회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20분 전, 4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 ③ 헌금은 헌금함(2~4층)에 직접 넣어주세요.
- ④ 강단안수기도 시 자신의 신발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 ⑤ 출근 또는 등교하시는 성도님을 위해 아침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회 후 레스토랑 파구스(지하 1층)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2019-2차 변화산새벽기도회
참여하는 특별한 방법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1 목상집을 활용하세요.

이번 목상집의 콘셉트는 일기장입니다. 매일의 시간 마음 날씨도 체크하고 목상하며 느낀 점을 일기장에 적어보세요.



2 변화산 기념 티셔츠를 입고 참여하세요.

이번 변화산 기념 티셔츠는 우리의 마음속 갈라진 금(crack)을 표현해보았습니다. 금이 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인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경험해보세요.



3 변화산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만나교회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는 이벤트를 확인하고, 참여해보세요. 선정되신 분께 한정판 기념품을 드립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9월 14일(토)~15일(주일) 실수해도 괜찮아! 레위

9월 16일(월) 부끄러워하지 마 괜찮아! 바디매오

9월 17일(화) 울어도 괜찮아! 나인성 과부

9월 18일(수) 힘들어도 괜찮아! 엘리야

9월 19일(목)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해 괜찮아! 백부장

9월 20일(금) 두려워도 괜찮아! 베드로

9월 21일(토)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혈루증 여인

9월 21일(토)~22일(주일) 흔들려도 괜찮아! 엠마오의 두 제자

| 9월 14일(토)~15일(주일) |

실수해도 괜찮아! 레위

누가복음 5:27-32

27.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30.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만들어 주시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 중심적인 삶으로 말입니다.

“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하다고 믿으면 특별해지는거야 ”
영화, 쿵푸 팬더(2008) 중에서



☑️ 오늘의 마음 날씨는...



Date. **September 14.Sat. / 15.Sun.**

a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morning (am) with horizontal lines.



p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afternoon (pm) with horizontal lines.



| 9월 16일(월) |

부끄러워하지 마 괜찮아! 바디매오

마가복음 10:46-52

46.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지라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하매 50.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상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니까요.

변화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과 부끄러움,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힌 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함과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 {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 ”
SBS 힐링캠프, 닉 부이치치 편(2013) 중에서

☑️ 오늘의 마음 날씨는...



Date. **September 16.Mon.**



a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morning (am). It features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a gold border and ten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p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afternoon (pm). It features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a blue border and ten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 9월 17일(화) |

울어도 괜찮아!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11-17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울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니까요.

인간은 무기력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공훈하심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애통 속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확신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능력도 받을 수 없다 } ”
존 오웬(1616-1683, 교회지도자, 신학자)



☑️ 오늘의 마음 날씨는...



Date. **September 17.Tue.**

a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morning (am) with horizontal lines.



p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afternoon (pm) with horizontal lines.



| 9월 18일(수) |

힘들어도 괜찮아! 엘리야

열왕기상 19:3-8

3.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4.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다 하고 5.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 분죽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니라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 어루만져 주시니까요.

내 뜻대로 안될 때, 내 기대와 바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힘들고 지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더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해, 나는 잘 할 수 있어'라고 애써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 채워주시고 어루만져주십니다.

“

킨츠기가 가진 아름다움의 본질은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더라도, 그 흔적을 수선함으로써 영원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금색으로 반짝이는 한 줄기 빛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경계선입니다

”

책, 킨츠기 수업(2018) 중에서



☑️ 오늘의 마음 날씨는...



Date. **September 18.Wed.**

a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morning (am) with horizontal lines.



p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afternoon (pm) with horizontal lines.



| 9월 19일(목) |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해 괜찮아! 백부장

누가복음 7:2-10

2.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6.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벼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8.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니까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자각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이 아닌 믿음을 보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 백부장의 믿음을 메시지 성경은 '단순한 믿음'이라 번역합니다. 믿음은 자격과 환경, 조건이 선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 살면서 거절을 당하거나, 실패했을 때 다양한 가능성들을 고려해보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

TED TALKS 지아 지앙(Jia Jiang):
100일간의 거절을 통해 배운 것들 편(2017) 중에서



☑️ 오늘의 마음 날씨는...



Date. **September 19.Thu.**

a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morning (am)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p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afternoon (pm)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 9월 20일(금) |

두려워도 괜찮아! 베드로

누가복음 5:1-11(본문 중 1-6만 기재)

1.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도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릴 사용하시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부르실 수 있는 첫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오직 주님의 판단만을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주님께 항복하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지금, 괜찮지 않은 자신의 상태를 적어봅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결단해봅시다.

나는 지금 _____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 {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진실한 신앙의 증거요,
가장 고상한 사랑의 행위이다.
나다니엘 에몬스(1745-1840, 신학자) } ”



☑️ 오늘의 마음 날씨는...



Date. **September 20.Fri.**

a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morning (am) with horizontal lines and a decorative border.



p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afternoon (pm) with horizontal lines and a decorative border.



| 9월 21일(토) |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혈루증 여인

누가복음 8:42-48

42.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3.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47.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로해주시며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사명이 생기고,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우릴 구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 {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거라고 넌 빛날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릴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 ”
커피소년, 내가 니 편이 되어줄게(2013) 중에서

☑️ 오늘의 마음 날씨는...



Date. **September 21.Sat.**

a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morning (am)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p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afternoon (pm)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 9월 21일(토), 22일(주일) |

흔들려도 괜찮아! 엠마오의 두 제자

누가복음 24:13-35(본문 중 13-16, 25-29만 기재)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하나 붙들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니까요.

우리는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도망간 비겁자들이 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니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 {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 ”
넬슨 만델라(1918-2013)



☑️ 오늘의 마음 날씨는...



Date. **September 20.Fri.**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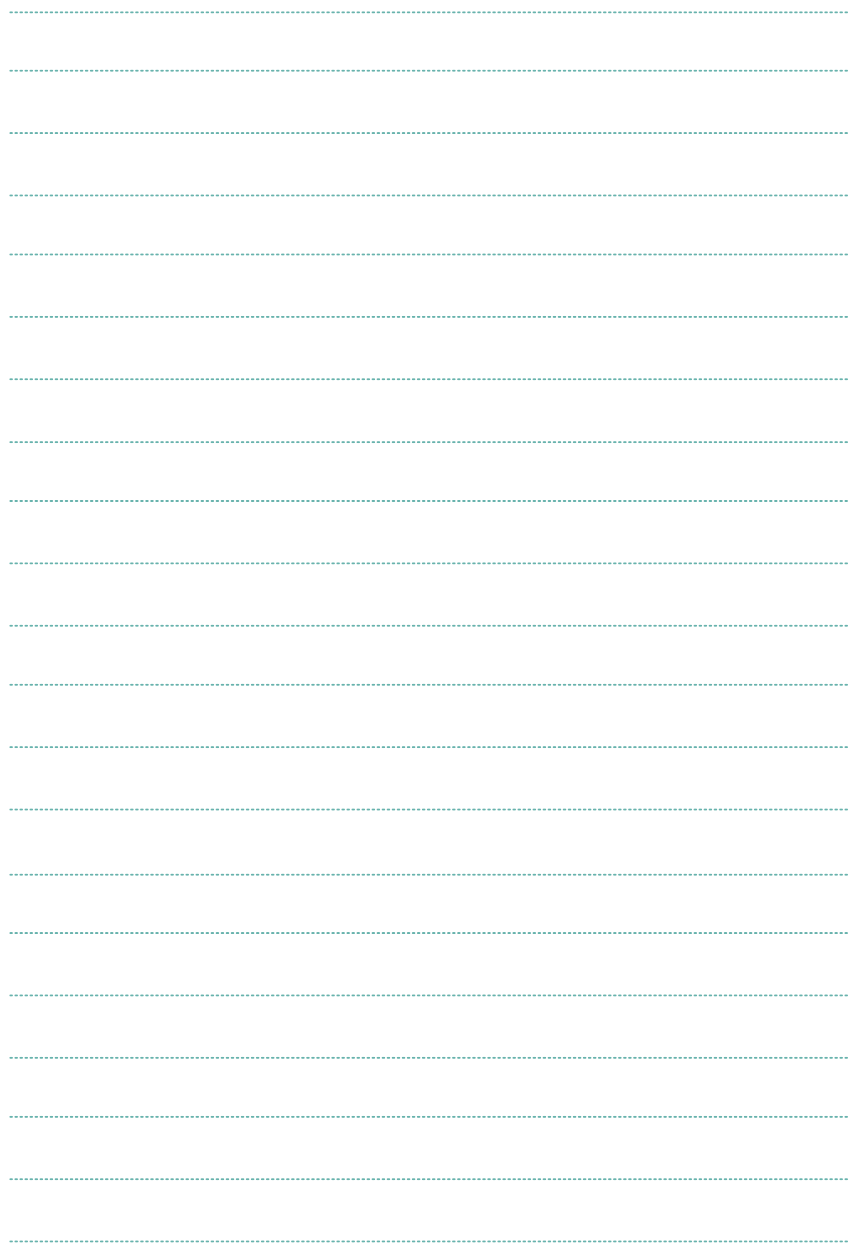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morning (am) with horizontal lines.



pm

Handwriting practice area for the afternoon (pm) with horizontal lines.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rranged in a column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2019-2차 변화산새벽기도회

STAMP

M.Kidz, MY.Blue, 만청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부서

.....

반

.....

이름

.....



It's OK not to be OK

2019-2차 변화산 새벽기도회

9월 16일(월)~21일(토) 오전 5:00/시온성전(2F)

오후 9:00(영상예배)/다니엘홀(B1)